

브라질, 에탄올 40억리터 수출

2008년 미국·EU 수요 증가로 5억리터 늘어 ... 미국 21억리터 수입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Ethanol) 수출량이 2007년 35억리터보다 5억리터 정도 늘어난 40억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 O. 리치는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07년 다소 감소세를 보인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량이 2008년에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수요 증가로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브라질산 에탄올은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다 미국과 EU의 에탄올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 O. 리치의 크리스토프 버그 소장은 2007년 브라질산 에탄올의 생산원가는 2006년에 비해 4% 정도 떨어졌으나 미국산은 오히려 4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제유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브라질 에탄올 산업이 수출 확대를 위한 결정적인 호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여전히 브라질산 에탄올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입량은 21억리터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양은 7억리터, 나머지는 카리브 지역 국가를 통해 수입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직수입되는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서는 갤런당 0.54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카리브 국가에서 중간가공 과정을 거치는 물량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EU에 대한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량은 2007년 10억리터에서 12억-13억리터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은 240억-250억리터, 내수시장 소비량은 200억리터로 예상됐다. 전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700억-750억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6>